

# ○ㅋ 속초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지 오케이속초

2022/03



○ㅋ속초는 '오케이속초'의 음절마다 초성을 끌라 나열한 표현으로, 속초의 문학을 발랄하게 즐겨보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케이속초는 속초시와 속초문화재단이 '문화적 삶의 조화를 꿈꾸는 공존문화도시 속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브랜드명입니다.

##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하여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를 문화브랜드로 성장시켜나가는 사업입니다.  
속초시는 '문화적 삶의 조화를 꿈꾸는 공존문화도시 속초'를 목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재단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홈페이지  
[www.oksc.or.kr](http://www.oksc.or.kr)



문화도시 속초 페이스북  
[www.facebook.com/oksokcho](http://www.facebook.com/oksokcho)



속초문화재단 블로그  
[blog.naver.com/sokchocf](http://blog.naver.com/sokchocf)



속초문화재단 페이스북  
[www.facebook.com/sokchocf](http://www.facebook.com/sokchocf)



속초문화재단 유튜브  
유튜브에서 '속초문화재단' 검색



속초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okchocf.or.kr](http://www.sokchocf.or.kr)



문화도시 속초 시민활동가 밴드  
[band.us/@oksokcho](http://band.us/@oksokcho)



속초문화재단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okchocf](http://www.instagram.com/sokchocf)



속초문화재단 밴드  
[band.us/@sokchocf](http://band.us/@sokchocf)



속초문화재단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홍화면에서 '속초문화재단' 검색



Vol. 10

목차

문화도시 알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문화도시, 그리고 속초 시민 > 02

김민혁, 속초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주목 인터뷰

청년의 가능성을 믿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 06

쓰담속초의 청년 4인방을 만나다

속초사색

속초의 겨울 풍경 > 10

전태극·박경심

공간의 발견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가꾸는, 아름다움의 장인 > 14

수도미용실 김옥진 원장을 만나다

전일 신고합니다

속초에 살어리랏다 > 18

김영미, 전업작가

이야기 보따리

그 시절 속초 사람들의 쉼터, 극장: 속초의 극장 문화 (下) > 20

박명선, 시민활동가

우리 곁의 사람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다 > 24

구니사다 유타카 교수를 만나다

속초 느낌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 28

최진희, 어린이책 읽는 어른 모임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지  
오케이속초

발행처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발행일 2022년 3월 1일

발행인 김철수

시민활동가 김종현, 박경심, 장재환, 전태극,  
정미현, 함연화

편집 박대우

디자인 장민정

표지사진\_속초해수욕장 방파제(2016) 전태극

© 2022 속초문화재단

저작권자가 표시된 글, 그림, 사진 등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가 갖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글, 그림, 사진 등의 저작권은 속초문화재단에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24821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영랑동 570-5)

속초문화예술회관 별관 2층

T. 033-636-0671 (문화특화지역추진팀)

F. 033-636-0665

[www.sokchofc.or.kr](http://www.sokchofc.or.kr)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www.oksc.or.kr](http://www.oksc.or.kr)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 > 30

**라운드 테이블 01. 청소년  
ICA X YOUTH**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요?

화단에서는 연령대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론화단에서 주관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해보자?

서 속초에 필요한 내용 의견을 나눴다면, 앞으로 대대를 대상으로 시민들로부터 받아보고 실현시켜 보세대별 라운드 테이블 첫 서 살고 있는 청소년을

어른들은 공간을 만들 때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 무엇을 좋아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 저 자신을 찾아가는 단계이고 부족하기만해요. 정해져있는 규칙에 갇혀 있는 공간보다는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 필요해요.

학교에서의 동아리는 어떤가요?

학생들의 진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동아리를 직접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올해 창업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했어요. 다만,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아리보다는 대입 위주로 활동하다보니 다양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요.

청소년-어른의 공존을 위해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요?

공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정이라 생각해요. 이건 한 순간에 바뀔 수는 없는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도 저희가 너무 어리게만 보인다고 하셨는데 어른들의 인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존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문화도시  
공론화단  
TIKI**

문화도시 알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문화도시,  
그리고 속초 시민

속초시에서 3년간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문화도시포럼’,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시민아카데미’ 등 100회  
이상의 행사에 3,000여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왔다. 올해에도 다채로운  
시민 활동이 속초시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02  
▼  
03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정과제의 해결방안으로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크게 ‘문화도시형’과 ‘문화마을형’으로 나뉘는데, 문화도시형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5년간 37.5 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마을형은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3년간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까지 문화도시형 36개 소, 문화마을형 45개 소를 지원했다. (정부는 이 사업 유형이 ‘법정문화도시 지정 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이후부터는 실시하지 않는다.)

예 돌담갤러리를 조성하고 아기자기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상도문 돌담마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대표브랜드’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문화도시형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4년차에 해당한다. 2019년에는 시민포럼과 세미나, 아카데미와 특별강연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2020년 2월 속초문화재단이 출범한 뒤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 속초시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속초시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두 가지 형태에 모두 선정된, 몇 개 되지 않는 지자체 중 하나다. 문화마을형 사업은 상도문 돌담마을에서 추진했고, 문화도시형 사업은 속초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문화마을형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상도문 문화마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여, 마을 곳곳

####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속초시에서 3년간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문화도시포럼’,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시민아카데미’ 등 100회 이상의 행사에 3,000여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왔다. 올해에도 다채로운 시민 활동이 속초시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사진 설명

- 01 문화로OK\_속초영화 만들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
- 02 시민 거버넌스 비치클린 활동이 속초 곳곳에서 벌어졌다.
- 03 (구)대포정수장 시민탐방 현장 모습.

04  
▼  
05

그중에서는 ‘시민활동가’로 명명된 시민들로 구성된 ‘문화도시공론화’, ‘소식지 제작’, ‘굿즈 개발’ 등의 거버넌스 도임이 시민 문화활동의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지역의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이야기 공모전’, ‘도시기록가’, ‘내가 그린 그림일기’, ‘마술다, 속초’, ‘속초인물수첩’ 등을 통해 속초시의 이야기와 인물 등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과 함께 속초의 영문표기 ‘SOKCHO’에서 ‘OK’ 철자를 부각시켜 ‘오케이속초’라는 브랜드를 개발했다. 이 브랜드는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속초시에서는 문화활동, 먹거리, 관광 등 모든 것이 OK”라는 보다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애쓰고 있다.

2021년 추진된 사업 중에서는 그동안 경제활동에 매진하면서 문화활동을 즐기는 데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 상인들이 참여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OK활력소’, 다양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직접 실행해볼 수 있었던 ‘주민참여예산제 시범사업 문화로OK’가 특히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2022년에도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속초시에서는 이러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근거로 2020년 6월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이 조례를 기반으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협의체를 발족하여 민간과 행정, 행정과 행정 간에 소통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 법정(예비)문화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여정에 들어서 2022년 현재 총 3차례 걸쳐 문화도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총 18개의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점점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법정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속초시에서도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추진했던 과정과 결과물을 기반으로 ‘문화적 삶의 조화를 꿈꾸는 공존문화도시 속초’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2021년 ‘제4차 법정(예비)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했으나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 속초 시민과 문화활동

속초시는 그동안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각광받으며 관광도시로서 성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삶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와 관광객의 요구에 많은 기준이 맞춰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시민의 문화적 삶은 후순위가 되었으며 시민들의 활발한 문화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문화도시사업’은 시민의 삶을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사업이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문화활동은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문화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진화해왔다. 더욱 많은 시민들이 문화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여 스스로 문화적으로 풍요와 행복을 느끼며, 시민의 삶 자체가 문화로 채워지는 도시로 발전해가기를 꿈꿔본다.

## 청년의 가능성 믿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 쓰담속초의 청년 4인방을 만나다

“쓰담은 ‘쓰다듬다’라는 의미 그대로를 갖고 있어요. 쓰다듬는 건 누군가에 대한 애정을 담은 표현이잖아요. 다 같이 속초를 쓰다듬자는 뜻이고요. 여기에 ‘쓰레기를 담다’라는 의미도 담았어요. 쓰담속초의 첫 시작이 비치클린(플로깅)이었던 만큼, 쓰레기를 담으며 속초의 환경을 쓰다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속초 시민들의 마음을 쓰다듬고자 해요.”

06  
▼  
07

2021년 속초문화재단은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속초에 필요하거나 해보고 싶은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인 ‘문화로 OK’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선정된 15개 팀 중 ‘영랑호랑이’라는 팀명으로 사업에 참여한 ‘쓰담쓰담해(해) 속초(이하 쓰담속초)’는 ‘쓰담 챌린지’, ‘바다 클린업’, ‘속초 보드게임 맹글기’ 등을 벌여왔다. 쓰담속초를 이끌어가는 네 명의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문화로 OK’ 사업에 선정된 팀 중에서 가장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고, 환경이나 청년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분들인데요. 팀원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속초를 “쓰담쓰담”하고 싶은 네 명의 청년이 모인 ‘쓰담속초’입니다. 속초를 사랑하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_\_\_\_ 저는 정미현입니다. 문학예술 교육 및 기획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쓰담속초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_\_\_\_ 저는 신다진입니다. 속초에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27년을 산 토박이입니다. 지금은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_\_\_\_ 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청년몰에서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쓰담 단체 활동을 하며 다른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_\_\_\_ 저는 함연화입니다. 쓰담속초 활동은 제가 하는 활동들 중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바쁘게 살고 있고, 마지막 청년의 시기를 멋지게 보내고 싶어 온 힘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임 이름 ‘쓰담속초’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쓰담은 ‘쓰다듬다’라는 의미 그대로를 갖고 있어요. 쓰다듬는 건 누군가에 대한 애정을 담은 표현이잖아요. 다 같이 속초를 쓰다듬자는 뜻이고요. 여기에 ‘쓰레기를 담다’라는 의미도 담았어요. 쓰담속초의 첫 시작이 비치클린(플로깅)이었던 만큼, 쓰레기를 담으며 속초의 환경을 쓰다듬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속초 시민들의 마

음을 쓰다듬고자 해요.

**속초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쓰담속초’가 해온 여러 가지 활동을 소개해주기도 했는  
데요. 지금까지의 활동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인 첫 시작은 문화로OK의 비치클린 프로젝트 ‘쓰  
담쓰담海 영랑湖’였어요. 2회를 진행했는데, 1회는 청정  
넷(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요. 그때 ‘쓰담이’라는 표현도 처음 쓰기 시작했죠. ‘쓰담  
이’는 쓰담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부르는 애칭이랄  
까요. ‘쓰담이’ 삼행시도 하고, 쓰레기로 예술작품을 만들  
어보는 ‘정크아트’ 콘테스트도 진행했답니다.

그 이후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2차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  
환해 ‘속초쓰담챌린지’를 진행했어요. 각자 쓰담을 한 후  
인증샷과 소감을 SNS에 인증하는 방식이었어요. 더불  
어 쓰레기 담기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장

비를 제공해드리고 함께 쓰담해주는 ‘같.따.쓰’(같이 따로  
쓰담)도 진행했답니다. 그 밖에도 게릴라쓰담으로 비정기  
적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문화로OK를 진행하며 동시에 강원살이의 리빙랩 프로젝  
트 ‘나답게 실험실’을 통해 ‘바다클린업 프로젝트’를 진  
행했어요. ‘바다에는 정말 쓰레기가 많이 떠다닐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실험이었어요. 강원활동해본부부터 속  
초해양경찰청, 포어시스 대표님까지 다양한 분들에게 자  
문을 구하면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배를 빌려 두 번 직접  
바다로 나가 쓰레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수거하기도 했어  
요. (돌고래 가족도 보았답니다!)

저희는 사실 각자의 관심사가 ‘환경’ ‘문화예술’ ‘청년’으  
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욕구를 모두 실현해보  
자 해서 ‘환경쓰담’과 ‘마음쓰담’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  
니다. 저희의 첫 마음쓰담 프로젝트는 강원살이의 모임  
지원 ‘오프너’를 통한 ‘속초 보드게임 맹글기’예요. 속초



쓰담속초의 멤버들. 왼쪽부터 이재환, 신다진, 정미현, 헐연화.

가 품은 이야기를 담은 우리만의 보드게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어요. 건강하게 소통하는 즐거운 놀이문화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답니다.

그 외에도 저희를 좋게 봐주신 분들의 추천으로 강릉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사례발표를 하기도 했고, 2021 전국 생활문화축제에 생방송으로 출연하여 쓰담(비치클린)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네 명의 청년의 힘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오느라 힘 드셨겠지만, 얻은 것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담속초'가 더 발전되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환** 올해 2022년에는 그동안 상상했던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실화시키려고 해요. 며칠 전에는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요.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면, '소소한 동네연구'는 동네에서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는 '속초, 청년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을까?'를 연구 주제로 삼고 속초에 이주한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연구해보려고 해요. 이주청년들을 모집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신다진** '쓰레기 ZZZ'는 지지지 스토리의 윤경 작가님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삼아서 '쓰레기를 잠들어버리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프로젝트입니다. '해변가의 작은 플리마켓'이라는 콘셉트로, 바다의 쓰레기를 화폐로 삼아 다양한 굿즈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기쓰담 비치클린과 정기 보드게임 모임, 그리고 저희의 새로운 자체 콘텐츠들을 꾸준히 운영해보려 계획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인스타그램(@ssdam\_sokcho)으로 문의주세요.

**단체가 지속적으로 모임을 이끌어나가려면 기본적인 운**

**영철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쓰담속초'의 활동이 추구하는 비전이나 궁극적 가치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함연화** 문화생활을 즐기고 누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문화가 여행이나 공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로도 확장될 수 있다고 봐요. 저희 네 명이 이런 공감대를 갖고 있어서 활동을 즐겁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로 시작해서 각자가 새로운 사람들 서너 명에게, 다시 그 사람들이 주변의 서너 명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나비효과처럼 번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미현** 속초에 아직 문화 전반에 거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공익을 위해 움직이는 청년팀이 없는 것 같아요.(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일차적으로는 쓰담속초가 속초 청년을 대표하는 팀이 되고 싶어요. 속초에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는 크레이티브한 팀, 또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진심으로 움직이는 팀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모임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이나 앞으로 계획 중인 활동에서 속초 시민이나 속초시와 속초문화재단에 바라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을 소모시키지 않고, 가능성을 믿고 지원해주는 정책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청년정책이나 청년들을 위한 지원,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타 지역에 비해 속초가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해요.

아직 공공성을 띠고 기획을 하는 청년단체가 속초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를 시작으로 청년층이 더욱 활성화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 후에야 뒤늦게 청년들에게 관심을 돌리기보다, 그 전에 청년들이 아동바등하고 있을 때 잘 키워주고 조력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단도 시도 모두요.



2022년 1월, 청초호와 조도 ⓒ 전태극

#### 속초사색

지난해 12월 24일의 큰눈은 속초의 전역을 하얗게 뒤덮었다. 엑스포타워에서 찍은 청초호와 조도(왼쪽), 동명동에서 찍은 속초등대(오른쪽)의 모습이 평소와는 다른 진풍경을 담고 있다.



2022년 1월, 속초등대 © 전태극



청초호의 대백로 ⓒ 박경심

#### 속초사색

곧 떠나갈 겨울철새들이 잠시 속초의 호수에 머물고 있다. 청초호의 대백로(왼쪽), 그리고 영랑호의 갈매기, 가마우지, 비오리 무리들(오른쪽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영랑호의 갈매기, 가마우지, 비오리 ⓒ 박경심

공간의 발견

#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가꾸는, 아름다움의 장인





© 현대극

업종	일반 미용업
주소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90번길 40
전화	033-633-4371
이용 시간	09:00 ~ 17:00 (현재 임시휴무 중, 2022년 5월 재오픈)

봄의 시작인 입춘이 이를 지난 오늘, 날씨가 제법 춥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입춘을 거꾸로 붙였나”라고 말할 정도였다. 바람에 흐트러진 머리를 보니 ‘사람의 첫 인상에서 헤어스타일이 80%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난다. 살짝 머리를 매만지고 속초 미용의 역사라고 불리는 이곳, 수도미용실 김옥진 원장님을 찾아뵈었다.

속초에 미용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래된 가게’를 이야기하면 다들 가장 먼저 이곳 수도미용실을 이야기해줍니다. 정확히 언제 문을 열었는지 궁금합니다.

1970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내 중앙시장 안에 지금은 문을 닫은 보건약국 옆에서 시작했어요. 그 뒤에 얼마 안 돼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 52년째 영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미용을 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 아주머니들 머리 만져주는 것을 좋아했고 그러면서 미용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열여덟 살 때 춘천에서 기숙미용학원을 한 달 다니다가 너무 비싸서 속초로 다시 와서 진명미용학원을 6개월 다니면서 스물두 살 쯤에 미용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습용 마네킹이 따로 없어서 같이 배우는 수강생들끼리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연습을 했어요. 서로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을 하다 보니 6개월 미용을 배우고 나면 머리카락이 다 바스러져서 없어지기도 했어요.(웃음)

미용 자격증을 땄지만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 말려서 미용 기술을 배워놓고도 시작을 하지 못했는데 형부가 권해서 미용실의 문을 열게 됐어요. 그때 당시 미용사 1명과 배우는 보조 스태프 1명을 두고 총 3명이 함께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 뒤로 미용사들이 기술을 다 배우고 나가

면서 오로지 혼자서만 미용실을 운영한지는 10년 되었어요. 그러다 작년 5월에 어깨 수술을 한 뒤로 쉬고 있는데 올해 5월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용실 이름이 ‘수도’인 것이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연유로 ‘수도’라고 지은 것인지 사연을 들려주세요.**

옛날에 수도미용실이라는 이름의 미용실이 중앙미용실 옆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도’라고 하면 손님들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담으로 어떤 남자분이 미용실 옆을 지나가면서 ‘여기 수도미용실이 다 있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펌프미용실이 수도로 변했어요”라고 농담하기도 했어요.(일동 웃음) 엄마들이 수도

미용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해줘서 미용실

이름을 이렇게 정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용 기술이 많이 바뀌었나요? 과거와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미용 기술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사용하는 기계 자체도 옛날과 지금이 아예 달라요. 요즘에는 전기제품, 디지털 기기가 많지만 그때는 연탄불에 달궈서 고데를 했어요. 기계식 고데기(수동)를 3대를 써야 할 정도로 예전에는 그렇게 고대를 많이 했어요. 기계식 고데기로 머리를 하면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나도록 머리가 안 풀려서 손님들이 머리를 일주일 동안 안 감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도 기계식 고데기를 원하면 해드릴 수 있어요.



“길이 새로 만들어진 뒤로 지금처럼 한적해졌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사람은 옛 사람들이 친근감 있고 더 좋고요.”

**수도미용실의 전성기와 기억에 남는 손님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단골손님은 누구인가요?**

25년 전인 1997년이 전성기였어요. 그때는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손님들 중에는 미용실 주변 사람들보다 청호동 손님이 많았어요. 낙산, 양양, 간성에서도 여기로 올 정도였어요. 그때는 예약이라는 게 없어서 한번은 청호동의 어느 새색시가 아침에 왔다가 앞의 대기 손님 일곱 명 정도를 기다렸다가 머리를 겨우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늦게 집에 가니 미용실 가서 오래 있는 것을 이해 못한 남편이 술 먹고 화가 나서 물 떠놓은 단지(그 당시 청호동에는 수도가 없었음)를 금이 가도록 깐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불 뒤집어쓰고 자는 바람에 그 물이 새서 연탄불이 다 꺼져버렸네요. 아니, 새색시가 머리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 한번 정말 오랜만에 머리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해놨으나… 그래서 그 새색시가 연탄집게로 단지를 다 두들겨 부수고는 그 부스러기들을 자는 남편한테 다 뒤집어 씩웠대요. 그다음 날 남편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혼이 났다고 해요. 그 일화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그 손님이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면서 미용실을 다니고 있어요. 90세가 된 손님이 가장 오래된 단골이시고요.

**원장님께서는 속초가 인구도 많이 늘고 많이 발전하면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것들이 변화했고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에는 여기 미용실 앞길이 대도로로 엄청 변화했어요. 영랑호 보광사 가는 길이 속초에서 여기 하나밖에 없어

서 소풍 가는 아이들 모두 다 여기로 지나다녔고요. 아침에 청소하면 오후 되면 먼지가 뿌옇게 앓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녔죠. 그러다가 길이 새로 만들어진 뒤로 지금처럼 한적해졌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사람은 옛 사람들 친근감 있고 더 좋고요.(웃음)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야요양원에서 미용 봉사를 20년 넘게 해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봉사활동을 못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한 달에 한 번 미용협회 사람들 서너 명이 가서 하루 동안 80명의 머리를 다듬어드렸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 빨리 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미용실 자체적으로도 봉사활동을 거의 10년간 해왔습니다. 일요일이 휴일인데 그중에서 매달 첫 주 일요일에는 동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스물여덟 분의 헤어스타일을 책임지고 관리해왔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계속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봉사하고 나올 때에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며 환한 미소와 함께 이야기하는 원장님의 모습을 보며, 내면의 아름다움이 곧 외면의 아름다움임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많은 봉사 중에서도 미용봉사가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기술을 배워 해보고 싶을 정도로 그 감정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졌다.



전입 신고합니다

## 속초에 살어리랏다

김영미

전업작가.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와 (사)한국창조미술협회,  
(사)한국보태니컬아트협회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대 연애 시절 남편과 처음 와본 속초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나는 30대에 한번, 40대 그리고 50대에 이곳을 네 번째로 방문하고는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길고 긴 타국생활을 정리하고 국제 이삿짐을 속초로 보내는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속초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속초 시민이 되었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 갈 날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해하고, 푸른 파도가 부서지는 해변에서 둑근 해가 떠오르는 장엄한 광경을 보며 또 감사해한다. 동쪽에는 동해바다 서쪽에는 한국의 최고 명산 가운데 하나인 설악산이 있고 시의 중심부에는 석호인 영랑호와 청초호가 있어 자연의 아름다운 혜택을 오롯이 받고 있으니 오늘도 행복하다.

이 모든 환경이 현재까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내 나름 외롭고 힘들었던 타국에서 생활하는데 베풀 목이 되었던 미술작업이 지금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남편에게 고국이 그리울 때면 항상 했던 말이 “여보, 나 아이들 키우고 나중에 한국에 가면 정말 그림만 그리고 살 거야”였다. 이 말이 현실이 되었으니 또 행복하다.

집안을 개조해 작업실도 만들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남편과 시어머니께 감사하다. 비록 아이들은 한국에 없지만 한국에 올 때마다 속초가 아름답다고 좋아한다.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그동안 고국이 앞서나간 면을 따라가지 못한 공백을 메우려 노력하고 있다. 덤으로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 내 주위에는 하나같이 따뜻하고 정겨운 사람들뿐이다.

현재 나는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와 (사)한국창조미술협회, (사)한국보태니컬아트협회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2021년에는 개인전(서양화)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시민의 문화활동 영역에서 강의로 이어져 강단에 서게 되었으니 이 어찌 속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나 스스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왔다. 그 고민 끝에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다. 이 같은 공부가 내 삶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문화예술 향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속초 시민 개개인이 문화를 두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속초 시정의 슬로건인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시민이 되고 싶다.

이야기 보따리

# 그 시절 속초 사람들의 쉼터, 극장 속초의 극장 문화 (下)



오케이속초

속초의 극장 사업이 성황을 이룬 1950, 60년대에 주로 설립된 극장은 1990년 대 초까지 약 일곱 곳 정도가 개업을 했다 폐업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극장은 영화 상영만이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나 월기대회 등의 장소로 활용되어 속초 문화예술 발전에 적잖게 기여했다.

밀림극장은 현명 상사로 전역한 인물이 옛 영랑 1구 시장 바닷가에 설립했다.<sup>1)</sup> 주로 영화 상영과 서울에서 가수들이 내려와 공연하는 공간으로 이용했다. 약 55년 전 고복수씨와 그 지인들이 와서 공연을 했고 동보극장이 생기면서 헐려 명태 덕장으로 변했다.<sup>2)</sup> 밀림극장은 목조 건물로 영화 상영보다 콩쿠르 또는 무대 공연을 위주로 운영되었다.<sup>3)</sup>

지역 극장 문화를 둘러싸고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밀림극장이라는 호칭에 대한 월남민의 반응이다. 월남민들은 북한 치하에서 생활할 때 김일성의 항일 만주 활동을 찬양한 선전 노래를 교육 받았는데, 선전 노래 가사 가운데 ‘밀림’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다. ‘밀림’은 낯설고 이국적인 문물로서 영화를 강조하기 위한 상업적 전략에서 차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복지구 월남민에게 ‘밀림’이라는 단어를 발화한다는 것은 월남민의 사상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일이어서 꺼려졌을 테다.<sup>4)</sup>

속초극장은 현재 동명동 사무소 옆에 자리했었고 1954년 11월 12일 현대식 2층 건물로 개관했다. 당시 고려극단이 ‘뒤주대왕’으로 개관 축하 공연을 했다. 밀림극장과 달리 속초극장은 주로 외화를 상영했는데 규모 면에서 밀림극장의 두 배 크기의 2층 건물이었다.<sup>5)</sup>

현대극장은 1959년 9월 3일 675석의 극장으로 건립되었고 총공사비가 당시 금액으로 사천오백만 환이었다. 그 뒤로 현대극장의 4년간 독주 시대가 열렸다. 당시 깡패들도 극장을 아지트로 삼아 활동했는데 당시 신문은 ○○○파가 현대극장을 주 무대로 활동한 것으로 보도한다.<sup>6)</sup> 그래서 극장 뒷좌석엔 ‘경찰관 입

1) 동문성(1936년생) 구술, 2011.8.17.

2) 김종규(1938년생) 구술.

3) 동문성 구술, 2011.8.17.

4) 위경혜『한국전쟁 이후 극장 문화 로컬리티: 강원도 도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7호, 2012, 565면.

5) 동문성 구술, 2011.8.17.

6) 『강원일보』, 1966.7.20.

회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고도 한다.

현대극장에서는 1964년 국민운동 속초시 지부가 발회식을 거행하고, 1971년 10월 18일 퇴폐풍조 일소 응변대회, 1973년 10월 20일 속초 종합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영화뿐만 아니라 속초 관내 문화예술 행사장으로도 사용되었다.

1970년대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점차 사람들은 극장을 멀리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현대극장'은 '동보극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분위기 전환을 꾀했지만, 그 후 재개봉관으로 격하되어 한꺼번에 두 편의 영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상영으로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다 1970년대 후반 카바레로 용도를 바꾸면서 폐관했다.

제일극장은 통천 회양군 출신인 이원익 씨가 월남하여 미곡상을 운영하며 재산을 축적한 후 1962년 당시 건축 중이던 제일극장을 인수하여 756석 규모로 설립했다. 초창기에는 7명 정도가 함께 투자한 주식회사 형태였다.

제일극장은 아바이 마을로 가는 갯배 선착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유동 인구의 덕을 보아 흥행이 잘 되었다. 1960년대 극장 운영의 애로점은 관객 수 변동이라기보다 영화 검열과 극장 관리감독 행정기관과의 마찰이었다. 일례로 흥행 '대목'으로 불리는 설날, 제일극장이 정원 700석을 넘어선 1,000여명의 관객을 입장시키자 '정원 초과'를 이유로 공보실로부터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sup>7)</sup>

이렇게 제일극장은 속초 극장문화의 한 축을 이루다가 영화사업의 사양화로 1991년 관람석을 축소하여 운영하다 1992년 서울예식장 자리에 중앙극장 소극장이 개관하자 폐업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지역 유자들이 극장주를 설득하여 폐관을 막으려고 했으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1998년에 문을 닫았고 그해 바로 허물었다. 그때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공공건물에 대해 구조안전 진단을 했는데 제일극장은 뼈대는 철근 없이 벽돌로만(조족), 지붕은 나무로(목재크러스 트) 지어져서 힘을 많이 못 받는 형태의 건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하게 되었다(극장의 본래 위치는 현 제일주차장 자리다).

중앙극장은 1962년 9월 10일 중앙시장 내 970석 규모로 건립하여 운영했다. 영화 상영을 주로 하면서 1966년 6월 28일 속초시와 속초방송국이 공동 주최한 제2회 노래자랑과 토론대회를 여는 등 다채로운 행사공간으로 썼다. 1968년 4월 22일에는 재향군인회 반공강연회가 열리기도 했다.<sup>8)</sup>

대원극장은 1966년 5월 9일 950석 규모의 2층 건물로 지어졌다. 지하에

#### 사진 설명

앞쪽 1965년 <저하늘에도 슬픔이> <위험한 보수>

등의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속초 현대극장 앞 풍경(속초시립박물관 제공)

오른쪽 1969년 속초 대원극장 전경(속초시립박물관 제공)



는 다방이 있었으며, 공연장 내부는 냉난방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속초에 대원극장이 설립됨으로써 영화 전성시대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영화 상영 외에도 1967년 5월 20일 미스 강원 및 리틀미스 선발대회, 1971년 12월 23일 제1회 크리스마스 자선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산가족 신년 성묘를 촉구하는 속초 시민 궐기대회가 1975년 11월 15일 이북 5도민회 주최로 열렸다. 여기서 '북송 일본인 처 자유 왕래 실천 본부장'인 이케다 후미코 여사는 격려사를 통해 전 세계 자유민들이 북한의 만행을 단결된 힘으로 규탄하고 이산가족들의 자유 왕래를 실현시키자고 호소했다.<sup>9)</sup>

이렇게 대원극장은 각종 대회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창업 초기부터 부도수표 남발로 물의를 빚어 절반을 잘라 소극장으로 축소 운영하다가 1997년 7월 14일 외화 「압솔루트 파워」 상영을 끝으로 30여년간 운영하던 극장 문을 닫았다.

동보극장은 기존에 있던 현대극장이 1969년 7월 3일에 이름을 바꿔 재개봉관으로 변신한 극장으로 평소 영화를 상영하면서, 1971년 10월 18일 속초경찰서가 주최하는 퇴폐풍조 일소 응변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병행했다. 1978년 2월 25일에는 전국 최우수 반상회 운영 촉진대회가 열려 반상회를 통해 건전한 국민윤리관을 확립하고 반공사상을 굳건히 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sup>10)</sup>

그러나 앞서 밀한 것처럼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극장 사업이 어려워졌다. 동보극장은 한꺼번에 2편의 영화를 보여주는 동시 상영을 시도하며 극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경영난을 넘지 못하고 70년대 후반 카바레로 용도를 바꾸면서 폐관했다.

7) 위경혜 「한국전쟁 이후 극장 문화 로컬리티: 강원도 도시를 중심으로」, 568면.

8) 속초시, 「시정 50년사(하)」, 휴먼컬처아리랑, 2016, 353면.

9) 속초시, 「시정 50년사(하)」, 367면.

10) 속초시, 「시정 50년사(하)」, 375면.



© 전태극

우리 결의 사람들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다

구니사다 유타카 교수를 만나다

인터뷰 시민활동가 정미현

속초시가족센터 운영위원, 경동대학교 전임교수, 다문화 이해 전문강사, 그리고 다문화통신 시민기자까지. 작은 체구에 '열정'이란 단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람. 아무 연고 없던 이곳 속초에서 지난 30여 년간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온 구니사다 유타카 교수를 만나 지나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국에 오신 지 30년이 넘으셨더라고요. 언제 한국에 오셨고, 어떻게 이곳 속초에 정착하게 되셨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때 재일교포 친구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친구의 권유로 1988년 한국 땅을 밟게 되었죠. 처음에는 몇 개월 코스로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국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정이 깊어지고 이곳 생활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교사가 되기 위해 일본교육학과 석사 과정을 공부하다가, 1992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함께 속초로 오게 되었지요.

“대학생 때 재일교포 친구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친구의 권유로 1988년 한국 땅을 밟게 되었죠. 처음에는 몇 개월 코스로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국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정이 깊어지고 이곳 생활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원도에서의 결혼생활, 큰 용기셨을 것 같아요. 속초의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남편이 고성 출신이어서, 거진의 시댁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한국에 온 후 서울에서만 살다가 고성에 처음 들어오니, 비교가 되지 않을 시골이었지요. 남편이 출근하면 너무 심심해 멍하게 있다가, 어느 날부턴가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해북부선 자리의 기찻길을 걸으면서 20세기 초반 한반도의 역사를 떠올리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 고려대 다닐 적에 단체여행으로 낙산의 연수원을 왔었어요.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버스타고 왔다가, 바다가 참 예뻐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결혼하고 낙산에 놀러갔더니, 낯익은 풍경이 있더라고요. 옛 기억이 떠오르면서, 낙산의 소나무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았지요.

속초, 고성, 양양의 학교에서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부터 다문화통신 시민기자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현재는 어떤

###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주세요.

속초시가족센터에서 처음에는 아동센터에서 일본어를 가르쳤는데, 가르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참 힘들었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복스터트 다국어동화 읽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다문화통신 시민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주기별로 다문화 관련 행사나 인물에 관한 기사를 써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훗카이도에서 파티세를 하다 한국에 오신 분이에요. 속초에 온 후 정보가 없어 일을 뜻구하고 있었는데, 기사가 나간 후 바로 단풍빵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까지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일본의 제과제빵 기술을 활용하고, 통역의 부분까지도 잘 맡고 있다고 해요.

현재는 경동대학교의 다문화이해교육 교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동우대학교 시간강사 자리를 소개받았어요. 일본어 수업으로 시작했다가, 2012년에 교수로 채용되어서 일본어 뿐 아니라 일본문화, 다문화사회 이해 수업까지도 같이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다문화이해 전문강사로 활동

하고 있어요.

###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해 다양한 일을 진행해오신 것 같아요. 혹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기억도 있으실까요?

일본문화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기모노를 입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아이들이 기모노를 입으면 참 예쁘거든요. 우리나라의 전통의상을 예쁘다고 해주고,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본문화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지요.

### 2012년에는 제3회 강원다문화가족대상에서 '다문화우수활동가'에 선정되기도 하셨죠. 이렇게 쉬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의뢰가 오면 거절하지 않아요. 교수가 된 이후에도, 사소한 의뢰도 다 수락해왔어요. '못한다고 하지 말자'는 마인드가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1월 '속초시가족센터'



로 명칭을 변경했더라고요. 센터의 명칭 변화은 꽤나 의미 있는 변화일 것 같아요. 앞으로 속초시가 다문화가정들도 차별 없이 어우러지는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어떤 변화와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잘 짚어주셨듯, 센터의 명칭 변화처럼 다문화가정이라고 분리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직 까지는 국가별로 사람들이 모일 뿐, 국가 간 소통과 교류가 없어요.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폐쇄적인 분위기'도 깨야 할 큰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한국사람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생각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한편, 결혼이민자는 한국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한국에 거리감을 느끼기 쉽고요. 멘토-멘티 프로그램이나 자매결연 같은 것들을 진행해보기도 했지만, 그때뿐이고 지속이 어렵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사람이나 결혼이민자 모두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해요.”

“한국사람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생각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한편, 결혼이민자는 한국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한국에 거리감을 느끼기 쉽고요. 멘토-멘티 프로그램이나 자매결연 같은 것들을 진행해보기도 했지만, 그때뿐이고 지속이 어렵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사람이나 결혼이민자 모두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배드민턴과 농구를 하는데, 그렇게 운동을 할 때 '내가 외국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을 통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궁금해 유학을 떠났던 젊은이는 어느덧 한국에서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중년의 교수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낯선 땅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 생각해본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곳에서 함께 뛰고, 땀 흘리고, 어울리며, 우리에게 '소통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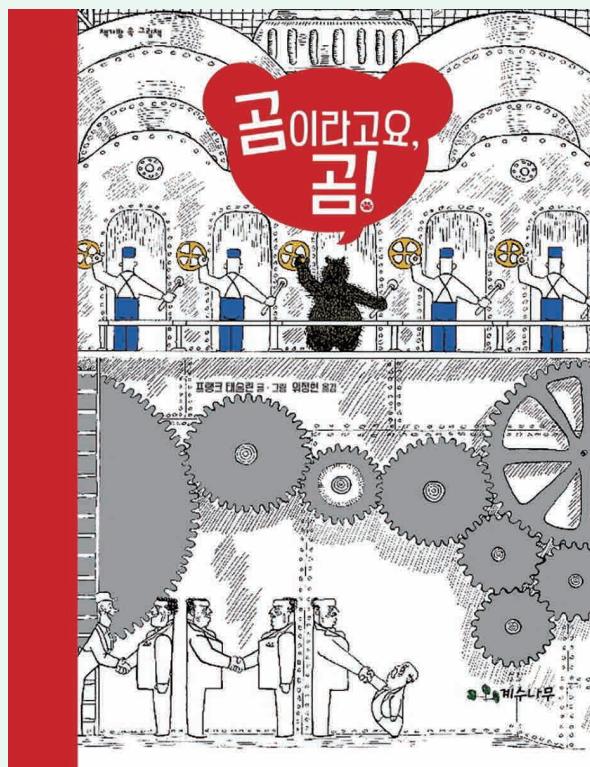
'지구촌', '글로벌 시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들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지금, 우리는 '조금 낯선 우리의 이웃들'을 얼마만큼이나 궁금해했을까? 이름조차 외우기 어려웠던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속초시가족센터'로 이름을 바꾸며 2022년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우리도 올해에는 낯섦과 어색함의 벽을 깨고, 먼저 손 내밀어 '함께하는 속초'를 만들어가기를 다짐해보자.

속초 느낌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곰이라고요, 곰!』



글: 그림 프랭크 대슬린 옮김: 우정현 출판사: 개수나무 출판년도: 2021 값: 15,000원

최진희 속초토박이입니다. 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방과후 아동요리와 창의과학 및 독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책모(어린이 책 읽는 어른 모임)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곰이라고요, 곰!』의 표지는, 곰이 사람들과 함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면으로 채워져 있다. 그 아래에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한, 거만해 보이는 어른들이 마주 서 있다. 처음 이 책을 접하고서는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왔다. ‘약간의 코미디를 담은 책일까?’라고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사람의 뒷모습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것도 아닌 듯했다.

이야기는 곰이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니 숲이 사라지고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 공장장은 곰에게 빨리 일하라고 지시한다. 그래서 곰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곰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공장장은 이를 윗사람에게 말하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윗사람의 윗사람에게 말하고 또 믿지 않으니까 그 윗사람의 윗사람에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회장에게 말한다. 그때마다 곰은 자신이 곰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결국 곰은 자신을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기계처럼 일한다. 그 공장이 망한 후 곰은 방황하다 숲으로 돌아온다. 자신이 눈오는 겨울에 숲 한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문하는 장면에서는 내 가슴의 한가운데가 뻥뚫리는 기분이었다. 시원해서가 아니라 그 구멍으로 숲속의 흰 눈이 날리는 기분이었다. 추웠다.

수많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

어하는지를 잊거나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나의 모습이 곰과 닮았다.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들에게 무턱대고 나의 생각을 주입하고 강요했던 순간들도 떠올랐다. 윗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나의 모습이 얼핏 스쳐 지나간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길 다시 한번 기도한다. 내 생각만 옳다고 강요하지 말고,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손하고 조리 있게 말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길 바란다. 곰이 맞닥뜨린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탁치더라도 다시 그들의 다리로 일어서서 굳건히 헤쳐나가길 바란다. 그런 곰들을 사랑의 눈길로 응원하는 어른들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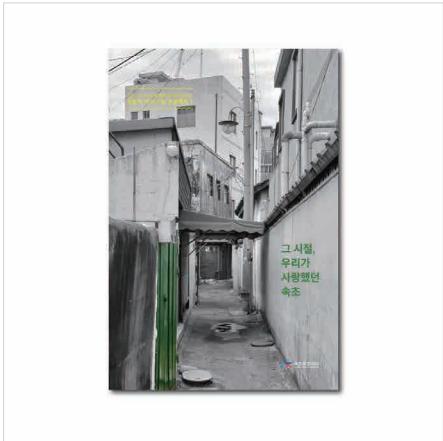
이 그림책은 가느다란 펜으로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윗사람을 찾아갈수록 집무실의 모습과 크기가 바뀌는 것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림책을 낯설어하는 어른들도 그림의 구석구석을 찬찬히 뜯어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용히 혼자서 또는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보기에 괜찮은 책이다.

##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



### 「속초인물수첩」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이다”라는 명제를 토대로 사람이 책이 되어 경험, 지식, 지혜를 나누는 ‘휴먼북’에서 시작된 인적 자원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속초문화재단에서는 책을 통한 정보 습득보다 직접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한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1 속초인물수첩은 속초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할 수 있습니다.



###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속초」 단행본 발간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속초의 기억 수집 프로젝트 제1탄: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속초」 이야기 공모전 수상작을 수록한 단행본을 발간했습니다. 공모전 수상작은 연극·영화 시나리오, 동화 등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자료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이야기를 소재로 했던 1탄에 이어 사진·영상을 수집하는 「속초의 기억 수집 프로젝트」를 연속 추진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기록물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문화도시 갤러리 Part. 2 전시 종료

2021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성과공유회 ‘문화도시 갤러리 Part. 2 연결·연결·CONNECT’가 막을 내렸습니다. 1,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하고 커넥트 투어를 통해 전시 공간 네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각 공간의 큐레이터로 임해주신 시민활동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문화도시 갤러리 Part. 2 TV 방영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과 3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의 내용을 전시하는 '문화도시 갤러리 Part.2'가 생방송 강원365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전시가 진행된 공간 네 곳과 시민활동가분들의 인터뷰가 소개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전시는 종료되었지만 상설전시로 유지되며, 앞으로도 속초의 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2 시민활동가 모집

시민활동가는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함께하는 속초 시민을 비롯하여, 속초시의 문화를 성장시키고 이곳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거버넌스는 '문화도시 속초'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활동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모이는 자리입니다. 올해도 살기 좋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 시민활동가를 모집했습니다. 올해 어떤 시민들과 함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채워질지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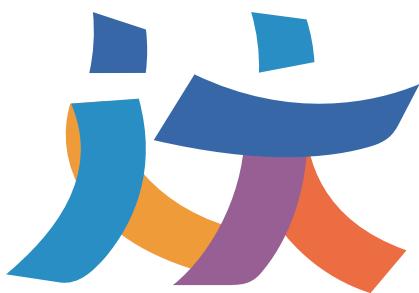


(재)속초문화재단이 출범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출범 2주년 기념으로 속초문화재단 임직원들은 영랑호링이팀과 함께 청호동 아바이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정화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속초문화재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준비하면서 문화예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nd

ANNIVERSARY

Since 2020. 2. 10.



속초문화재단

